

## 구제역 방역 캠페인 전개하는 퓨리나 코리아



◎ 지난해 11월 19일 잠실롯데월드호텔에서 개최된 97/98 퓨리나 방역캠페인 행사

- 취재 : 이병석 -

대만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발생한 돼지구제역(Foot & Mouth Disease)으로 인해 전체 양돈관련산업에서 향후 5년동안 4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돼지 400여만 두를 살처분하는 등 대만 양돈산업이 초토화되었을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성장률이 0.15~1.4% 정도로 하락하는 등 대만 경제와 양돈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

대만은 돼지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연간 지육기준 36만 2천톤의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

되므로 대외수출의존도가 약 60%에 이르는 양돈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앞으로 양돈산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제역 질병은 아주 심각한 1급 전염병으로 오제스키나 PRRS등과는 달리 농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양돈산업이 완전히 몰락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될시에는 국내 양돈산업도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중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며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돼지 구제역이 유입된 경로가 중국 본토에서 반입되는 무분별한 밀수가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 대만은 중국에서 생돈이 직접 들어오는 등 밀수가 성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대만 양돈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돈이 밀수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구제역은 돼지 뿐만 아니라, 소나 산양 등의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중국 등지에서 소꼬리 등의 밀수입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언제 구제역이 들어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 검역소 등 항공·항만 등에서 축산물의 반입을 검사하고 있으며, 구제역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널리 홍보하는 등의 구제역 방역에 대한 많은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본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구제역 방역 성금을 모금하는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전 특약점에 지급된 고성능 고압분무소독 세척기



◎ 소독발판, 방역스티커 등이 전시된 모습



◎ 방역포스터

그러나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항공·항만 등의 검역은 전국 50여개중 검역관이 파견되어 있는 곳은 14곳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외국에서의 축산물 반입을 막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스스로도 구제역에 대한 아무런 대처방안도 갖고 있지 못한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하겠다.

만약 이대로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구제역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킬지 그 누구도 국내 양돈산업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주)퓨리나코리아에서 사료공장 하치장에서부터 특약점하치장, 그리고 농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 주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방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서 찾아 보았다.

### 97/98 퓨리나 방역 캠페인

(주)퓨리나코리아에서는 구제역 방역 캠페인

을 지난 9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집중적인 홍보와 세부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열심히 뛰고 있었다.

우선 퓨리나는 대만의 구제역 발생이 일부 중국 본토로부터의 생돈밀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협을 외면한 밀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방화 시대의 국제간의 교류가 빈번한 현실을 놓고 볼 때 구제역의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현재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 검역소 등 정부에서 구제역 방역에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구제역 방역은 기본적으로 농장차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농장의 방역으로부터 하치장, 사료공장 등 축산업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지도·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 구제역 방역 캠페인이 전 축산업계에 널리 전파되어 모든 축산업계가 함께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퓨리나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전략은 내·외부로 나누어 내부적으로는 사료공장과 하치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영업직원, 운전자들에게 개인 소독 장비를 지급하여 철저한 소독후 농장을 방문하게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특약점 사무실, 특



◎ 충남 공주의 한 우수농장 견학시 방문자들이 방역복과 장화를 신고 소독발판 등에 발을 적시고 있다.



◎ 농장방역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인식하고 이번 구제역방역캠페인을 주도하는 (주)퓨리나코리아 강세원이사

약점 하치장,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하기 위하여 차량 소독조와 소독 발판, 소독기구를 갖추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고압 분무세척소독기 등을 특약점에 지급하여 특약점에서 농장에 직접 소독을 해주는 등 성공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농장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캠페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

퓨리나 강세원 이사는 현재 국내 양돈산업은 구제역에 아무런 대비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양돈농가 스스로가 먼저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농장부터 소독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의 구제역이 상재되어 있는 중국등지의 값이 싼 돼지고기가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므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그 존재마저도 위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강이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구제역 방역 캠페인이 퓨리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국내의 전 축산업계가 이를 인식하고 함께 동참해 주어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보호하는데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다. **養豚**